



농림부

브랜드 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축산물 브랜드 사업이 농산물 브랜드 유통에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 4월 18일 대회의실에서 '브랜드 농산물 유통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 농산물 브랜드의 현주소를 짚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 발표를 통해 농림부 유통정책과 김정주 사무관은 "현행 농산물 브랜드는 분명하고 차별적인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물량공급 등으로 소비자 인식을 재고해야 함에도 브랜드 파워가 미흡하고, 지나치게 많은 수의 브랜드가 난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축산물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다른 농산물 품목에 비해 전문기업과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브랜드화가 상당히 진전돼 성공적인 사례로 확산되고 있는 단계이고, 친환경, 위생·안전성, 고품질, 가축방역 등에 있어 축산정책의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재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는 우수 브랜드도 고정적 구매로 연결되는 충성도는 낮은 수준인 점이 한계로 지목되며 축산물 브랜드를 향후 규모화와 전업화 추진을 비롯한 개선사업의 요체로 보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농림부는 강조했다.

토론을 주재한 농림부 박해상 차관보는 "앞으로 브랜드 없는 농산물은 유통이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브랜드 사업을 육성하고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토론자들은 광역브랜드 육성에서 우려되

는 품질차이 극복방안과 대형유통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PB브랜드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2013년까지 80개 내외의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기존의 축산물 브랜드 육성계획은 전문 경영컨설팅 지원 및 홍보강화 등 다각적 측면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절차 폐지 추진

그동안 농지전용을 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확인 절차가 앞으로는 폐지된다.

농림부는 축산업계의 숙원사항중 하나인 농업진흥지역에 축사 진입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키로 하고,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조일현 의원이 입법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을 수정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지로의 축사 진입이 한층 수월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축산업계는 그러나 축산도 농업인 만큼 농지에 축사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된 농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우선 단계적으로 축사 진입을 완화하면서 농지 개념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농지법과 관련한 용역을 의뢰하고, 이 내용을 근간으로 농지법 개정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농림부 방침에 대해 축산업계는 휴경직 불체까지 주면서 놀리는 논에 축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축산을 확대하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DDA/FTA 등 개방 확대에 축산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 뻔한데도 축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에 소홀하고 있다며 농림부가 펼치고 있는 쌀 위주의 편향된 정책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축산단체장들과 축협조합장 등 축산 지도자들은 지난 4월 25일 박현출 농림부 축산국장과 면담을 통해 현 제도하에서 농지 심의 폐지는 축사의 농지 진입에 있어 큰 장애물을 제거한 것이기는 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농지법 개정안대로 처리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WTO에서 질병 비발생지역 인정절차 논의

제35차 WTO/SPS(위생·검역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구제역 등 특정질병이 발생하는 수출국이라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 한해, 청정화가 이루어진 경우 동 지역에 한해 '질병 비발생지역'을 인정하는 방안인 '동식물질병 비발생지역(지역화) 인정문제'를 중점 논의했으나, 회원국간 입장차이가 커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질병 비발생지역 문제에 대해 WTO 차원에서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인정방법을 언제까지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출 개도국과 여타 국가들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차기 회의에서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중남미 국가들은 빠른 시일 내에 '질병비발생지역'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 뉴질랜드 등은 시안 별 여건이 다르고 과학적 평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인위적 시한설정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중남미 국가와 EU 등을 중심으로 급진전될 수 있다고 전망되므로 우리와 같은 입장의 국가와 공조하면서 농산물 수입국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차기 SPS 회의는 오는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비발생지역 인정 문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번 SPS 회의 기간 중 우리 대표단은 아르헨티나와 양자협의를 갖고 검역조치와 관련한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사과·배를 아르헨티나에 수출하기 위한 아르헨티나측 위험평가 진행상황 및 지난 쌀협상에서 합의된 바 있는 아르헨티나 오리엔지와 가금육 등에 대한 우리측 위험평가 진행상황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아르헨티나산 가금육(8단계중 2단계), 2006. 1월 아르헨티나측에 가축 위생 관련 정보를 보완, 제출토록 요구).

흙도 살리고 축산도 살리는 '자연순환농업' 추진

농림부는 그동안 화학비료와 농약 위주의 영농으로 인해 악화된 지력을 회복하고 자연생태를 보전하기 위해 흙도 살리고 축산도 살리는 자연순환농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작년 9월(2005. 9. 7)부터 농림부, 농촌진흥청 및 농협의 경종 및 축산전문가로 구성된 '자연순환농업팀'을 구성·운영해오고 있다.

농림부가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흙에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축분 퇴비 또는 액비와 같은 유기질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토양은 지질학상으로 산도가 높

고 유기물이 부족한 불리한 조건임에도 그동안 좁은 국토에서 많은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위주의 증산농법에 의존한 결과, 토양에 염류가 집적되고 미생물이 크게 감소되어, 방치할 경우 흙의 생명력 복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퇴비와 액비가 토양에 적절히 환원되지 못했던 것은 양질의 퇴·액비를 생산하려는 축산농가들의 노력이 미흡했고, 경종 농가는 손쉽게 구입하고 살포할 수 있는 화학비료를 선호했으며, 퇴·액비를 농경지에 환원할 수 있는 이용체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자연순환농업이며, 이를 통해 농토를 살리고, 지속적인 축산업 영위가 가능하며, 화학비료도 절감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양질의 퇴·액비 사용에 의한 농산물 생산증가와 품질 개선 효과가 입증되기 시작하면서 파주축협 등에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환농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구체적인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안)에 대해 3월 중에 경종·축산 농가 및 관련 기관(단체)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했으며, 제시된 의견에 대한 분석과 보완 작업을 거쳐 빠른 시일내 동 대책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예산처는 내년도 축발기금 전체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296억8,900만원 증가한 1조237억7,500만원으로 잠정 편성했다.

하지만 세부 사업 유형별로 보면 자연순환농업 등 2007년도 신규사업 예산 272억원(농림부 요구액)을 한문도 반영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기존 사업 가운데서도 사업별로 최고 10%까지 예산을 삭감했다.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지원(용자) 예산의 경우 올해 2,042억5,500만원에서 10% 줄어든 1,838억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원유 수급조절·축산물 수급안정·송아지 생산안정 농가보전금·학교 우유급식·가축공제사업 지원·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가축질병 근절사업·친환경축사 설치 시범사업 예산도 각각 5%씩 감액 편성했다. 또 축산물 유통 및 가격조사·종축등록사업 지원·양봉산업 육성·쇠고기 이력추적 시스템 사업 예산도 소폭 줄였다.

반면 축발기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올해보다 3% 늘었으며, 특히 금융기관에 예치해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유자금 운용액은 올해보다 63.1%나 증액한 3,838억7,500만원이나 편성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쓰이도록 조성되는 기금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부의 관계자는 “내년도 축발기금 운용계획(예산)은 아직 예산처와 협의도 하지 않았고 국회를 통과해야만 확정되는 것인 만큼 아직 얼마가 늘었고, 줄었는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축산업계 관계자는 “국가 전체의 살림살이를 다루는 예산처가 축발기금에 대해 한번 그려놓은 밑그림을 대폭 손질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내년도 축발기금 예산 확보 문제가 가뜰이나 어려운 축산업계에 또 다른 현안으로 떠오를 것 같다”고 우려했다.

기획예산처

내년 축발기금 잠정 편성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축산발전기금 운용과 관련, 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 삭감한 반면 금융기관 예치를 통해 기금 수입을 올리는 여유자금 운용액만 크게 늘리는 쪽으로 기본 방침을 세워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06년도 축산물 위생관리 추진 현황 현장
보고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4월 12일 닭도축·가공장인 (주)마니커 동두천 공장에서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 학계, 연구계, 지자체 및 농림부 관계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 축산물위생관리 추진현황 현장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생산자·소비자·업계, 학계, 연구계 관계자에 대하여 검역원의 2006년도 축산식품 안전관리 추진현황을 닭도축·가공생산현장인 마니커 동두천 가공공장에서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현장체험과 함께 개최되어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 및 추진업무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축산물위생관련 제도, 수출입 축산물검역 검사, 식육중 미생물관리, 축산식품의 잔류물질 관리현황, 국내 닭질병 발생동향 및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대한 중요 테마를 설정하여 생산 가공현장에서 수의과학검역원 담당 과장 등이 직접 설명하고 토의함으로써 소비자, 생산자 등 모든 참석자들이 축산물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 축산물에 대한 신뢰확보에 큰 역할을

하였다.

강문일 원장은 이 자리에서 “소비자가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 관련단체 및 소비자 등이 직접 참여하고 농정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검역원이 될 것”임을 표명했다.

2006년 양계분야 협의회 1차 모임 가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양계산업의 질병, 위생 및 사양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모색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수요자 측면에서 적극 발굴하고자 지난 4월 19일 양계분야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위원은 대학, 동물병원, 생산자단체 등에 종사하는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7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금번 모임에서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9N2) 국내 백신접종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을 주제로 토의가 있었다.

협의결과를 종합해 보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실시한 농장에 대해 국가방역지원에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 이유로는 백신접종한 닭일지라도 야외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폐사 등의 임상증상은 나타나지 않지만 분변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될 수 있으며, 백신항체에 의한 면역억압(Immune press)에 변이주가 출현할

수 있으므로 백신접종한 농장에 대한 야외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농장에서는 야외바이러스가 농장내로 침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군별 감시계(백신 미접종 닭 30수)를 투입하여 야외바이러스의 감염여부를 상시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양계분야 협의체는 또한 마렝병(MD) 조기감염에 따른 면역억제로 다양한 전염성 질병에 2차적으로 노출되어 피해가 증가되고 있으므로 검역원을 중심으로 대학 및 현장이 연결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축산물 HACCP 지정업체 간담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4월 11일 축산물 HACCP 지정업체와 시·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 HACCP 지정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검역원의 주요업무 소개와 강원대 홍종해 교수가 좌장으로 HACCP 기술세미나가 진행됐으며, HACCP 운영 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으로 HACCP 제도개선·발전을 도모하는 자리였다.

강문일 원장은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HACCP 제도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온 지정업체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국내·외적인 여건변화로 HACCP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농장단계 HACCP 도입 시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검역원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단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HACCP 지정업체간 기술정보 교류·협조체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질병 위기 대응 통합훈련' 실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외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 NSC를 비롯한 8개 부처·청, 5개 지자체 등 19개 기관에서 총 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축질병 위기 대응 통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의 내용·체계를 중앙부처 및 지자체 관계자에게 숙달시켜, 유사시 국가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함과 동시에 매뉴얼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몽골 식품농업부, 검역원과 수의분야 기술협력 강화 요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4월 12일 몽골 식품



농업부 차관보 N. Batsuiri 일행을 맞아 한국의 선진 수의기술을 소개했으며, 전문가 교류, 공동연구 등의 협

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

몽골 식품농업부 대표단 일행은 해외악성전염병을 진단하기 위한 검역원의 차폐시설을 둘러보고 몽골에서의 차폐시설 설립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조류인플루엔자 연구실을 방문하여 한국의 방역대책 및 첨단기술을 이용한 조류인플루엔자 진단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지속적인 기술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몽골 농업부 차관보는 현재까지 검역원에서 보내준 기술인력·진단키트 등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해외 연수 및 현지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개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부터 금년 3월까지 소속 직원들이 해외출장 및 연수를 통해 입수한 가축질병 방역, 동물 및 축산물 검역, 축산식품 위생정보 등 24회의 출장 결과에 대한 귀국보고회를 개최기로 했다.

보고회는 각 분야별로 4월 25일 ‘호주·뉴질랜드의 축산물 위생제도 및 HACCP 운영실태’를 시작으로 축산식품위생분야 6과제, 5월 2일에는 ‘칠레 등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가축위생실태조사’ 결과 등 검역·방역분야 8과제, 5월 9일에는 ‘2005년 국제부루세라 학술대회 참석’ 결과 등 가축위생연구분야 10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검역원 관계자는 “금번 귀국보고회를 계기로 해외출장자들이 습득한 지식을 내부 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 등과 공유함으로써 해외출장 및 연수효과

를 극대화함은 물론 선진국의 우수한 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관련제도 및 연구의 국제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농가 순회교육 추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최상호)는 최근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만성소모성질병 등 국내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키고자 ‘2006년 축산농가 순회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축산농가 순회교육은 전국에 있는 소사육농가 및 양계·양돈농가를 대상으로 20회에 걸쳐 연중 치러지며,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축종비율에 따른 대상농가와 교육내용을 선정하고, 방역본부 출장소 단위의 맞춤형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가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순회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방역본부는 5월에 충남도와 경북도에서 각각 양돈농가와 양계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6월에 강원도에서 소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계속되는 축산농가 순회교육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축산물등급판정소

비전 선포식 개최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김경남)는 지난 4월 17일 본부 3층 대강당에서 창립 17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기념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비전 설정 경과보고와 미션 및 비전 선포식 행사를 개최했다.



농림부 관계관 등 초청인사와 임직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창립 이후 17년간의 등급판정사업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조직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축산물의 생산·유통·소비의 지표'를 제공하는 최고의 서비스 전문기관'이라는 비전을 선포했다.

축산물등급판정소는 그동안 많은 워크숍과 토론회를 통해 미래발전 전략을 수립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축산업의 양적성장의 한계와 FTA확산 등 외부의 환경변화에 조직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체평가와 함께 전직원이 위기 의식을 공감하고 판정소가 달성해야 할 목표가 반영된 비전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등급판정소는 이번에 발표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판정결과 활용도 제고'와 '조직역량 극대화' 등의 9대 전략과 내부혁신을 위한 '업무혁신' 등의 4대 혁신전략을 마련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들이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농협중앙회

'또래오래 치킨먹고 월드컵보고' 경품행사 실시

농협중앙회 목우촌은 독일월드컵에서 한국 선수

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경품행사를 실시한다.

목우촌은 '또래오래' 치킨을 4월 24일부터 6월 23일까지 구입하고 홈페이지(www.toreore.com)에서 경품응모행사에 참여하는 구매고객 중 12,907명에게 추첨을 통해 독일여행권(2명, 1인 1매), DMB 휴대전화(5명), 국가대표 유니폼(50명) 등 다양한 선물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4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SK텔레콤과 제휴해 제공하고 있는 워드 다이얼서비스를 통해 목우촌 골드왕을 주문하면 15,000원에서 13,000원으로 2,000원 할인해 준다.

워드 다이얼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래오래 홈페이지에서 워드다이얼서비스를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축산사이버컨설팅, 축산기자재 쇼핑몰 오픈



축산사이버컨설팅에서는 농가 실익증진을 위한 야심찬 기획으로 출발한 축산기자재 공동구매 쇼핑몰사업을 5월 2일부터 시작한다.

접속방법은 '축산사이버컨설팅 홈페이지 (http://livestock.nonghyup.com) 좌측하단에 '축산기자재쇼핑몰'을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등 가능하다.

■ 문의 : (02)2127-7431, 7416 농협 축산컨설팅부

(사)미국대두협회
사무실 이전
<p>(사)미국대두협회(회장 조세영)는 지난 4월 24일자로 사무실을 이전했다. 전화번호와 팩스번호, 이메일은 변함없이 예전과 동일하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프레스센터 빌딩 11층 ■ 전화 : (02)738-7056 ■ 팩스 : (02)736-5501 ■ 이메일 : soyakor@kornet.net, asakorea@asa.or.kr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사무실 이전
<p>(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회장 이병역)는 지난 4월 13일자로 사무실을 서초동으로 이전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43-13 서초성모빌딩 3~5층 ■ 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장실 : (02)3471-8130 - 상근부회장: (02)3471-8140 - 총괄이사 : (02)3471-8134 - 사무국 : (02)3471-8135~7 ■ 팩스번호 : (02)3471-8139

(사)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사무실 이전
<p>(사)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회장 지재학)는 지난 4월 25일자로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 서초동 소재 축산회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5 축산회관 2층 ■ 전화 : (02)3471-9401 ■ 팩스 : (02)3471-0603

한국가금학회
춘계 심포지움 개최
<p>한국가금학회(회장 강창원)는 '양계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주제로 오는 5월 12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에서 다음과 같이 '2006 춘계 심포지움'을 개최한다.</p> <p>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가금학회(041-580-6711)로 연락하면 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06. 5. 12(금) 10:00~17:00 ■ 장소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대강당 ■ 주제 : 양계산물의 안전성 확보 ■ 행사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장 : 이규호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양계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농림부 이상진 서기관) - 양계농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 적용 (천하제일사로 김종택 상무) (좌장 : 김순재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계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 적용 (퓨리나코리아 교영곤 이사) - 양계산물 유통과정의 위해분석 및 식품안전성 확보 (마니커 오기석 본부장) - 안전 양계산물 생산을 위한 기금질병 제어 대책 (검역원 권용국 연구관) (좌장 : 박근식 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양계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 - 지정토론자 : 김기석(경북대), 김준영(Zellan), 박성열(CJ Feed), 오경록(남덕 SPF) 
<p>■ 바로잡습니다</p> <p>지난호 '인사소식'란에서 농림부 금현수 부이사관을 '김현수 부이사관'으로 금정옥 서기관을 '김정옥 서기관'으로 바로잡습니다.</p>